

C_M_018 눈미 불듯당본풀이

① 개요

눈미 불듯당본풀이는 조천읍 와산리 불듯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옥황상제 말잣딸아기가 불효한 탓으로 인간세상에 귀양 당하여 큰 돌의 모습으로 오름 위에 나타나자 주민이 이 돌에 대하여 기자하여 임신을 한 뒤에 찾기 어려우니 낮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데 따라 고장남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당신으로 좌정한다.

② 내용

옥황상제 말잣딸아기가 불효하여 인간 땅에 귀양정배되었다. 말잣딸아기는 당오름으로 내려왔다. 이때 와산리 주민 하나가 자식이 없어 문점하여 뜬금없이 생긴 큰돌을 위하라 는 점괘를 얻었다.

당오름 꼭대기에 큰돌이 있어 찾아 제를 지냈더니 과연 포태를 하게 되었다. 산달이 되어 다시 제를 지내려고 당오름 꼭대기를 오르고자 하나 다리가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였다. 쉬면서 내려와서 좌정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였다. 출산을 한 뒤에 다시 제를 지내려고 찾아보니 미륵돌이 내려와 있었다. 좌정처를 정하면 모두 위하겠다고 하며 빌었다. 다음 날 찾아보니 고장남밭 폭낭 아래로 옮겨져 있었다.

③ 특징

각시당본풀이와 함께 천신이 당신으로 좌정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옥황상제의 딸이 불효한 탓에 인간세상에 귀양정배되었다. 인간세상에 내려와서는 커다란 돌덩이로 화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미륵돌로 삼아 자식 낳기를 기원하곤 한다. 신의 내력과 함께 처음 이러한 기원을 한 사람의 내력을 중심으로 본풀이를 꾸몄다. 그 구성이 독특하다. 전반부는 신 중심, 후반부는 사람 중심이다. 한편, 미륵돌이 왕석인 경우는 흔치 않다.

당신이 불도삼승또이면서 옥황상제의 딸로 설정된 것은 삼승할망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와 관련된 당으로 대표적인 것은 일렛당이다. 그러나 일렛당은 치병·산육

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다. 포태는 일렛당의 직능과는 거리가 있다. 포태는 당에서 기원하지 않고 불도맞이를 해서 기원하는 법이다.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④ 핵심어

옥황상제 말잣딸, 귀양, 왕돌, 미륵돌, 불도삼승또, 삼승할망본풀이, 치병, 산육, 일렛당, 불도맞이, 포태

⑤ 원전 서지사항

눈미 불듯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